

활력 있는 청년대군을 키운 위대한 품

청년들은 강성대 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기발을 펼쳐 험난한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한 한다는 새해 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에 화답하듯 노래 『당을 끌어 청춘들이 앞으로』가 강산을 진감시키고 있다.

창조와 위훈이 없이야 값높은 시절을 말하려
로 동당부름에 피끓는 청춘들이 앞으로
조국의 큰짐을 다 맡자 최첨단 폐천
도 다 취자
애국에 불타는 청춘들이 당을 따라 앞으로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강성대 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꽂강한 둘격전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더워 높이 펼쳐갈 굳은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선군시대 청년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뜨겁게 절감한다.

시대와 역사 앞에 가장 활렬하는 청년 대군을 키워 내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회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추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김정일동지가 우리의 사상과 령도를 믿음직하게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일

이 잘되어 나갈것이며 우리 혁명은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활렬하게 밟전하나 같겠습니다.』

세상에는 조국의 미래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이 청년들이 사회의 우후끼리로 되어 물러리기를 알고 있는 나라들,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전통과 혁명의 재부, 사상정신적 유산을 개인의 향락을 위해 말아먹는 청년들에 의해 비판과 절망에 빠져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증시사상에 의하여 청소년들 모두가 당의 근위대,

결사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가 되어 무진간강한 위력으로 조국을 펼쳐들고 있다.

일찌기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청년대군을 키우는 의의를 부여하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를 떠나 결코 태양의 존과 더불어 빛나는 우리 청년들의 영광님 친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세상에 이보다 더 성스러운 부름,

값높은 칭호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이 나라 청소년들의 심장마다에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주체의 희불을 지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주체 8 4 (1995)년 10월 10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50돐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희불행진이 진행될 때였다.

뜻깊은 희불행진에 앞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누리를 밝히며 활활 타오르는 희불봉을 남녀청년에게 넘겨 주시였다.

희불봉을 억세게 틀어잡은 두 청년

이 온 나라 청소년들의 한결같은 심정

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충정의 애세를 훌륭히 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우리 800만 청소년들은 장군님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총총한으로

더불어 억세게 준비하겠습니다.』

령도자와 혁명의 계승자들 사이에 맷

어진 혼연통일의 위력을 파악하는 참으로 숭엄한 화폭이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희불봉

의 무게에 대하여 다른 헤아리지 못하였다.

다음날인 10월 1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0돐을 경

축하는 희불행진에 시작될 때 청년들

에게 혁명의 희불봉을 넘겨주었다.

거기에는 자라나는 우리의 새 세대 청

년들이 꺼칠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어 불타는 열정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지니고 당을 맨 앞장에서

결선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두리에 일심 단결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위업을 펼쳐가 완성해 나가는 우리 당의 청년전위가 되기를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하나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작하고 풍요로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풍요로운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기에 든든합니다. …

주체 혁명위업이 맞을 윤리면 혁사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시었던 주체의 희불, 그 세찬 불길처럼 청년들이 선군혁명의 전군길에서 꺼질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로 비가 오나 둑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을 풀까지 걸어나가기를 비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하늘같은 믿음이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심장을 활활 태우고 있다.

내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수풀처럼 일어서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에는 우리 청년들이 훌륭 고귀한 품과 그들이 이룩한 영웅적 위훈이 또

드로여 가로세겨져 있다.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원로와 비상한 창조적 열정을 안고 거창한 청년들의 전위, 선두에도 우리 청년들이 서 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를 비롯하여 세계를 아울러 세계를 향해 나가기로 했던 청년인재들이 주력이 되어 이룩한 승리이며 우리 최첨단 기술의 하나인 CNC 기술의 명맥을 끊어쥐고 전반적 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청년인재의 대부대가 있기 때문이다.

80여년전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개척과 더불어 백두밀림에서 태어난 충성실의 전통을 더욱 끈끈이 이어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다.

세계의 천 척 높이 장이 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가 높이 모시여 우리 청년들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하기에 그때에서는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엄혹한 시기에서 중요한 건설공사를 청년들에게 맡겨주시고 변함없는 신념과 백발불굴의 투지와 힘을 안겨주신것이 아니면다.

청년영웅동도로 더불어 뜯겨지게 안겨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숙자옥은 그대로 청년들에게 대한 사랑이였고 믿음이였으며 청년증시정치의 빛나는 귀감이였다.

그때 완공된 청년영웅동도로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은 청년영웅동도로를 무심히 보지 않아야 한다고, 이 도로에 조국의 풍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글의의지로 투쟁한 우리 청년들의 고마운 은덕을 깊이 새기고 땅의 주인, 나라의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다.

세계의 천 척 높이 장이 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가 높이 모시여 우리 청년들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조선청년원 금지와 자부심을 짜는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한 우리 청년들은 인민생활상황과 강성대 국건설에서 결집적 전환을 일으킬 올해의 대고조에서도 활력을 안겨주신것이 아닙니다.

그때 전 4월에도 백두산을 맑아 억세고 기운차며 아름다운 모습을 기념비적 창조물을마다에 별처럼 새겨지는 청년전위들의 고귀한 퍼와 땀을 소중히

나타나고 있는 편향적 문제

를 지적하시면서 눈에 알

그루로 무색하고 알곡작물을 심으면 보내기 어려울 것을

그리고 풍요로운 청년에게는 그이에

이상의 생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두번동사의 묘

리에 대해 알게 주시는 그이

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

들의 먹는 문제를 위해 그

처럼 마음쓰는 위해 한

어버이의 솔직한 풋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였다.

이발에는 앞그루로 아무것

이나 심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경우에는 강

냉이의 생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두번동사의 묘

리에 대해 알게 주시는 그이

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

들의 먹는 문제를 위해 그

처럼 마음쓰는 위해 한

어버이의 솔직한 풋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였다.

그리고 풋을 풀려는 그이의

손이 놓여 풋을 풀려는 그이의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리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에서

보답의

열정안고 드세찬 생산돌격전을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자랑한 록력적성과로 빛내인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동계급이 인민생활 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놀려고 있다.

지난 1월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크나큰 영광을 얻고 공장의 일군들과 동자들을 모두가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기 위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식료가공업체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맛있고 영양 가득은 여가기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을

일떠세우고자 나그네인 위대한 장군님을 편에 없는 강추위속에서 공장에 모시게 힘풀 힘풀로도 생각지 못했던 이곳 일군들과 동계급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 그 믿음에 짐작으로 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보답하자!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는데서 민족적성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리원시의 식료공장에 것 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명도 업적을 기증드롭게 새기며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으로 퇴직길을 이어갔다.

마중나온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구내에 들어서니 아담하게 자리 잡은 옥색의 건물들과 깨끗이 포장된 구내길, 가까운 차한 감나무들로 하여 마치 공원에 들어선 듯 하였다. 마주보이는 생간물들이 들어서니 남새 가공을 맡은 작업반의 종업원들이 비상히 양양한 열의 속에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다.

세 척설비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원료들을 깨끗이 내고 남새단절기와 각종 콤비아들이 기세 좋게 돌아가는 작업장은 증산의 숨결로 물들었다.

원료들이 가공공장을 차례로 거쳐 소독장치가 달린 콤비아에 실리는데 이것을 넘겨받은 종업원들이 장점임을 다그치고 있었다. 산뜻한 위생복을 입은 종업원들이 기술적요구대로 맡은 작업을 솔직하게 하고 있었다.

«이 갖가지 장점임들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널리 만들어온 전통음식의 하나입니다. 정방체를 비롯하여 우리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주민들 속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수십년을 일해 오고 있는 작업반장 최명숙 동무가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누구나 이런 쟁정의 맹세, 결사의 각오를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판철투정에 한사랑같이 떨쳐나섰다.

공장당조직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계기와 정황에 따라 다양하고 참신하게 진행하여 일터마다에서 인민생활에 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지배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월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차량들로 지방의 원료를 높이 세우고 생산조직과

자기들의 힘을 높여 맛있고 영양 가득은 여가기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을 일떠세우고자 나그네인 위대한 장군님을 편에 없는 강추위속에서 공장에 모시게 힘풀 힘풀로도 생각지 못했던 이곳 일군들과 동계급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 그 믿음에 짐작으로 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보답하자!

부문 기술자들의 도움길에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설계를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완성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빼쳐가고 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계기와 정황에 따라 다양하고 참신하게 진행하여 일터마다에서 인민생활에 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비록 한 사람으로는 영광의 그날에 대한 이아름다운 영광을 높이 세우고 생산조직과

자기들의 힘을 높여 맛있고 영양 가득은 여가기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을 일떠세우고자 나그네인 위대한 장군님을 편에 없는 강추위속에서 공장에 모시게 힘풀 힘풀로도 생각지 못했던 이곳 일군들과 동계급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이 후 즉시에 공장과 도의 해상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혁신의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그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 장군주 동무를 적극 발휘하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벌려고 있다.

원료가공을 맡은 2직장에서도 청탁들의 기술개선과 보수를 동시에 높이고나가면서 힘있게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
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시는 시련과 난관을 겪으
며 끊임없이 밤낮으로 일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무동력 1 직장
을 나서는 청진금속건설련합기
업소 당원위원회 책임일군은 기
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대단히, 일군들과 로동자들
모두 이 기세로 공격전을
벌리면 어랑천발전소 언제 풀리
리 트치기공사를 계획대로 진행
할수 있다.)

신심에 넘친 그는 공무동력 2
직장으로 발걸음을 다그쳤다.

사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
공동사업을 받들고 전투목표를
통이 크게 세웠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전국
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일터, 자기 소초를 한
치도 물려설 곳이 없는 전선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맡은 생산
과제를 주호도 어길수 없는 전
투명으로 여기고 광활한 공
격정신으로 돌진해나갈 때 불
가능이 있을수 없다고 하였
다. 그렇다. 올해의 대고조는
2012년에 향한 결승전이다.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
계급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

불태우면서 어랑천발전소건설
에 필요한 부재들을 생산하고
글재를 보장하며 혼합물운반부
력을 더 높이기 위한 사업 그
리고 발전소건설장의 설비보수
를 끌내기 위한 사업 등을 힘
있게 벌리였다.

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내려
가 전투를 지원하며 결린 문제
를 풀어나가도록 사업을 짜고
들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 첫
전투를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글재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으로 시작하였다.

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빨
이 벌리였다.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일
군들은 강하류에 글재장을 새
롭게 정하고 그곳까지 도로를
내기 위한 전투로 이렇게 날이
저물고 새날이 밝아오는지 몰
랐다.

—여기는 한치도 물려설 곳
이 없는 전선이다.

1월의 모진 추위속에서 일군
들과 로동자들은 이런 의지로
시장에 부지런히 헌신하고
그곳까지 도로를 멀리 헛
여행으로 돌아온 것이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전투도 힘 있게
벌

이었다.

—1월중으로 부속품가공을
끌내고 2월까지는 설비보수정
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한다. 그래야 올해 언제 콩크리
트지기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
할수 있다.

공무동력 1, 2 직장 일군들
과 로동자들은 이런 의지를 암
고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일군들은 자체보장을 비롯하여
결린 문제를 풀어주며 전투원
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
계급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그리하여 축가공을 공무동력
1 직장에서 맡게 되었으며 마
침내 자체의 힘으로 해내게 되
었다.

(모두가 자기 초소를 한
도 물려설 곳이 없는 전선으
로 생활할 때 못해낼 일이 없
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련합기업소
당원위원회 책임일군은 공무동력
2 직장에서 힘들었다.

직장에서는 선반작업반 반장
을 비롯한 선반공들이 어랑천
발전소건설장 설비들의 만가동
보장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과
공을 위한 마지막 공격전을 벌
리고 있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전투도 힘 있게
벌

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선
반공으로 일하는 기능공인 김
준수에게 물려온 직장에서
살아온 그는 기쁨을 품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혼합물을 진차
로 운반하기 위한 로선건설전
투가 벌어졌다.

비로 그려한 때 글재장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
한 부속품가공을 위한 마지막
작전을 벌리고 있다.

자주통일시대를 힘있게 전진시키는 탁월한 령도

오늘의 시대는 우리 겨레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6. 15 통일시대이다.

우리 민족끼리가 시대의 리듬으로 되고 있는 민족이 자주통일을 위해 뜻과 힘을 합쳐 나가는 백년 천실은 민족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구성 이 신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통일 정도와 애국현신이 놓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유언대로 이 땅에 강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뜻과 의지를 안으시고 그를 위한 투정을 험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철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온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민족의 혁명적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원은 조국통일이며 통일보다 더 절박한 민족적问题是 없다.

민족이 자주통일개척의 앞길을 성

과적으로 열어나가면서 탁월한 위인의

명도를 받아야 한다. 민족의 운명과 그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령도자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사상

리론적에지를 지니시고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을 화해 밝혀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과 조선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판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방침들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은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족방문국장립방안을 통해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규정해주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통하여 온 조국통일위업을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으로 제시하신 조국통일

위업을 확고히 담보로 펼치는 위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승하고 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강령들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접대성하신 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